12-2 // 팝아트 (작가 목록)

1) 리차드 해밀턴 – 영국 팝아트의 대표적 작가

4) 제스퍼 존스 미국 팝아트, 웬만한 작가 다 합쳐도 이 사람 작품 하나 살 수 없다. 거장 중의 거장

7)~15) 미국 팝아트 작가

8) 앤디 워홀 – 미국 팝아트의 가장 전형적인 작가.

20) 베르나르 랑시약 - 프랑스 신구상주의 작가

18) 벤자민 웨스트 - 미국의 역사 화가

19)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 - 사진 작가

6) 제스퍼 존스, <석고상이 있는 과녁> 1956 / 제스포 존스 <네 개의 얼굴이 있는 과녁> 1955 //

대중적이지 않다->석고로 인해 뭔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 별로 쾌락적으로 보이지 않음.

대중문화적으로 보임->중립성, 획일성, 표준성, 유사성.. 이와 같은 것의 특징을 가지고 보면 팝아트(대중문화와 관계가 있음)

대중사회의 특징 : 1. 보편성 2. 획일성 3. 쾌락성(통속성) 4. 대량생산(복제,반복) 5. 유사성 6. 익명성 7. 무관심(중립성) 8. 표준화 9. 수동적 10. 관조적 11. 인스턴트적..-->팝아트의 특징!

영국에서 먼저 시작. 1958년경부터 미국에서 팝아트 시작. 대중 문화 사회가 훨씬 발전한 곳이 미국(뉴욕)이기 때문에 훨씬 발전. 영국 팝아트는 미국 팝아트로 합류.

리차드 해밀턴이 예술의 바람직한 특성인 예술성, 대중적이고 일시적이

사실 일시적이지도, 저렴하지도, 대량생산된 것도 아니므로 팝아트는 순수미술.

따라서 팝아트는 반모더니즘 or 모더니즘 미술로 들어가기도 함..

영국 팝아트는 첨단 과학 기술이 대중화 되어가는 과정.. 이와 같은 것을 풍자.

미국 팝아트는 추상표현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시작.

그림이 너무 어려워지고 추상으로 나가게 되니, 대중은 미술에 관심 멀어짐. 그림도 안 삼. 화상에서 그림에 붐을 일으켜야겠다고 생각. 레오 카스테르가 팝아트를 본격적으로 키우게 됨. 제스퍼 존스라는 사람이 이런 성조기를 가지고 1958년에 레오 카스테르 화랑에서 전시를 하게 되는데, 그 전시부터 우리는 팝아트가 전개되었다고 얘기함. 이 그림을 보니까 대중들은 재미를 느낌. 일단 형상을 발견했다는 사실 자체에서 재미,.. 따라서 팝아트는 추상미술을 밀치고 1960년대 중반까지 최고의 미술사조로서 발전하게 됨.

추상미술에 대한 반발X!!!!!!! 추상 미술의 원리를 가지고 형상을 도입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팝아트는 무관심성, 중립성의 성격 가지므로 정치적 발언, 사회적 발언 하지 않고 반발 저항심 드러내지 않음. 추상의 원리 받아들였기 때문에 평면성과 물질성 중요시 여김.

5) 제스퍼 존스 <위대한 5> // 액션 페인팅의 흔적을 분명히 볼 수 있다.

팝아트는 일반 대중의 감정, 성격, 특성을 따름. (추상미술은 작가의 감정을 투여)

형상을 보여준다고 하지만 재현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형상을 선택!!!!!!!해서 2차적이라고 얘기.

팝아트는 상업 문화나 대중 문화에 대해 긍정적. 그 것을 비판X. 대중 문화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 특징. 반항심 표출X. 추상미술의 원리를 받아들이면서 미국의 소재로 사용.

그래서 1964년 로버트 라우젠 버그가 대상을 받으면서 전세계에 파급. 그러나 팝아트는 굉장히 알려졌지만 한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 팝아트를 받아들여 그룹을 만들거나 운동X. 심지어 앵글로색슨족의 미술이라고도 불림. 그 당시 대중 문화가 미국만큼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1960년대).

팝아트는 자본주의와도 깊숙히 관련. 미국이 미술에 주도권 가지게 되면서 부르주아와 밀접한 관련. 그러나 유럽에선 좌파적인 공산주의적 성격 가졌었음..?

제스퍼 존스 <흰바탕 위의 기> 1955 // 처음에 애국심 자극, 군국주의 적이다 비판. 그러나 차용의 대상일 뿐. 사적인 감정과 취향 드러내지 않음. 자아 반영X. 중성적이고 중립적인 것이 팝아트의 특징. 미술의 원리 추상에서 보면 프랭크 스텔라의 줄무늬 띠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평면성, 전면성, 균질성에 감동)

6) // 제스퍼 존스 왈, 회화는 언어이다. 언어=기호. 기호로서 관여, 이와 같은 석고상을 보여주는 거지, 자신의 감정 등 상징성을 넣는 것 아니다. 대화를 할 때도 듣는 사람에 따라 관점이 다르듯이, 이 기호를 가지고 누가(보는 사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그림 자체는 객관적 중성적. 이 것이 팝아트의 특징.

팝아트는 추상의 원리 따르므로 모더니즘적. 또한 반면 반모더니즘적이기도 하다.

중성적, 뭔가가 은폐되어있는 듯한 느낌. 이중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 틀림없다.

이런 과녁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다. 깃발 펄럭거리는 성조기, 그림 속의 성조기, 그림과 실제 사이에 관람자. 그와 같은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제스퍼 존스가 원하는 것. 본인이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있고, 그림 속에 그 대상이 있고, 실제과 그림 사이에 관람자가 있고, 그 속에서 답을 찾는 것. 그래서 회화는 언어이다 라고 한 것. 특별하 내용이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목 그대로 …

한국에서 1960년대에 이런 그림 꿈꿀 수 없다. 대중 사회가 그만큼 발달되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팝아트 나오는 것. 한국에서 그 당시 유행한 것은 (앵포르멜 미술!) 추상 주의 허무, 좌절, 절망.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할지(실존주의). 나라마다 상황 다름.

미국에서 팝아트 작가 키우게 되며 작품이 무지무지하게 잘팔림. 그 당시 유명했던 드쿠닝이라는 사람이 레오 카스테르라면 맥주 깡통도 미술 작품이라 하고 거액에 팔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든 것이 7) 제스퍼 존스, <채색된 브론즈> 2점, 1960

// 실제 맥주깡통 가지고 청동으로 주물 뜬 것.

8) 뒤샹, <샘> 1917 // 슈퍼에서 변기 사서 알무트라고 사인해서 전시장에 내놓은 것(레디메이드).

뒤샹이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예술가가 된다는 것을 처음 시작한 사람.

예술가들 조수 존재. 뒤샹의 샘은 정말로 아이디어. 존스도 아이디어..->100% 아이디어만 있어도 그 작가의 작품이 되는 것. 그러므로 조수 시켜도 된다. 존스는 분명 뒤샹의 영향 받았을 것이다. 뒤샹은 다다이즘. 제스퍼 존스는 네오(NEO=NEW) 다다. 내(존스)가 레디메이드라 한 것은 전통적인 예술의 심미적인 것에 대해 부정, 도전하기 위한 거다. 네오 다다는 존스의 깡통 두 개는 레디메이드를 찬미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예술의 미의식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전통적인 미술을 찬미하고 있다.

그래서 네오 다다라고 하면 안된다. 주물 뜬 것(굉장히 전통적)을 대자 위에 곱게 올려놓음. 전통적인 조각상과 다를 바가 없다. 단지 소재, 주제를 대중들이 사용하는 맥주캔에서 모티브를 가지고 왔다. 그러나 정신은 다르다. 그래서 팝아트는 있는 그대로를 수용해서 있는 그대로를 보여줌(중립적, 중성적, 사회적 정치적 의도X). 뒤샹이 기존 미술 조롱, 존스는 기존 미술 안에 있다. 존스는 대중들의 일상생활의 기억을 환기시킴으로써 생활과 미술의 간격을 없애고자 하는 것.

재밌으면서 미술작품에 대한 (주물로 떠서 곱게 대자위에 올려둠) 거부감이 없다.

소변기 하나를 미술작품으로 내놓아 거부감을 일으키는 관람객이 많다 미술의 전통적인 사고에 갖힌 사람은 샘을 미술로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

뒤샹 본인은 반미술이라 주장했으나, 미술은 창조자에 나아가서 지시자가 되도록 하여 미술을 높이 올려놓음.

추상표현주의에 액션이 들어감(작가의 행위). 미국의 팝아트 작가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더니즘의 원리안에 있으면서 이런 소재가 대중문화라는 것이고. 추상표현주의를 계승하는 것이 특징.

그림에 있어서 표현적인 것. 잭슨 폴락 같은 작품. 자신의 감정을 집어넣어야 하는 작품을 할 때는 조수가 했다고 하면 그건 그사람 작품 X. 이 표현적인 선 하나하나에서 작가의 감정이 나와야 하기 때문. 그런데 조영남 그림은 붓터치, 물감의 두께가 갖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본인이 해야 하는 것..

9) 뒤샹 <병꽂이> 1917 // 그냥 와인병 꽂는 거 갖다놓음.

11) 로버트 라우센버그 <모노그램> 1955-59 // 실제로 박제된 염소. 뭔지 모르게 기괴한,억압된 듯한 느낌(초현실주의 영향 반영). 라우센저그는 존케이지 영향 많이 받음. 원래 출발이 추상. 박제된 염소 벼룩시장 서 삼 (레디메이드, 뒤샹의 영향). 뒤샹 존경하면서 추상과 초현실주의 결합. 이런 것을 본인이 컴바인페인팅. 회화와 조각의 영역을 합쳐놓은 것.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염소를 총으로 쏴 죽인 것을 보고 그 기억이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음. 동성애자였다. 염소에 타이어 끼운 것은 동성애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토템적. 어린시절의 강박관념. 여기에 놓여 있는 것은 이런 식의 추상표현주의의 영향 반영.

물성에서 초현실적인 은유성 발견했다. 라우센버그

존스는 숫자, 성조기, 지도 같은 것으로 작품. 라우센버그는 폐품, 벼룩시장에서 사는 것을 가지고 추상표현주의와 결합하게 됨. 다다보다는 어린 시절의 강박관념, 토템, 은유적인 공포와 결합하기 때문에 조금 팝아트에서 멀다(부르주아X. 그렇게 대중적이진 않다..).

로버트 라우센버그 <오달리스크> 1955-58 // 암탉은 매춘부를 상징. 대중의 통속성 반영. 동물은 에덴에서 날아온 천사. 그래서 인간의 타락성을 고발하는 증인의 역할을 하기도 함. 추상표현주의에 대한 경의는 항상 잊지 않는 것이 라우센버그의 특징. 제스퍼 존스도 바로 프랭크 스텔라의 줄무늬, 즉 추상. 라우센버그도 추상미술에서 시작. 어떤 대중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보다는 개인의 강박관념, 어린시절 추억, 기억 등을 가지고 작업. 그래서 라우센버그는 완전한 팝아트 작가라고 보기에는.. 어쨌든 대중이 사용하는 물품 이용해서 만들었다는 관점에서 팝아트에 들어감. 후에 대상 받으며 팝아트 전세계적으로 알림.

12) <뉴욕의 슈퍼마켓에서의 워홀> 1960년대 / 헨리 다우먼 <슈퍼마켓 전시> 1964 //

전형적인 팝아트 작가 🡪 앤디워홀

2차 대전에 사용했던 과학기술을 가정용품, TV,미디어 등 으로 돌리면서 굉장히 대중사회로 돌리게 됨. 그래서 대중사회 발달.

나는 소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 앤디 워홀 🡪대중 사회의 가장 큰 특징

앤디 워홀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돈’이라 인터뷰!

앤디 워홀은 자신의 화실을 팩토리라고 함. 그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원봉사자. 브루주아의 착취를 몸소 보여줌.. 본인이 미디어 스타처럼 살길 원함.

13) 앤디 워홀 초상화 / 앤디 워홀 <자화상>

14) 앤디 워홀 <젊은 날의 라우센버그> 1962 / 앤디 워홀 <구두> 1950 //

동성애자. 내적으로 우울. 체코에서 이민 온 2세대. 처음에는 아주 미술에 재능있어 디자이너. ‘구두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별명 있을 정도로 유명. 디자이너로서 잘나감. 1960년에 순수 미술로 전환. 디자이너로서 아무리 월급 많이 받아도 제스퍼 존스 작품의 1/50도 안된다. 라며 돈 많이 벌기 위해..

본인의 삶 자체가 가장 대중적이면서, 작품도 대중적임. 유사성, 평면성, 익멱성, 통속성 등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 광고 디자인이라는 것은 정보의 기능이 있고, 복제의 특징이 있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순수 미술은 미적 쾌감이 가장 중요하고 유일성을 갖는 것이 특징. 앤디 워홀 역시 반복 복제 사용하나 유일성 갖는 측면에서 순수 미술가.

15) 앤디 워홀 <브릴로 상자> 1970 / 앤디 워홀 <브릴로 상자> 1970 //

내가 니 아이디어를 50달러 주고 사겠다. 뒤샹의 영향. 겉으로는 돈돈돈 하지만 내면은 종교심 깊으며.. 뭔가 다르닼ㅋㅋ 가장 대중의 속성 가지고 있다.

16) 앤디 워홀, <코카콜라>, 1962// 실크 스크린으로 하면서, 코카콜라병을 반복. 반복이 가장 큰 특징. 무엇보다 코카콜라가 모든 대중이 마시는 것.

앤디 워홀 왈, 나는 기계가 되고 싶다.

17) 앤디 워홀, <코카콜라>, 1962 // 왜 코카콜라를 반복하느냐? 대답 : 나는 돈을 많이 벌려고

18) 앤디 워홀 <200개의 캠벨 수프캔> 1962 // 제목을 안보면 잘모름. 반복을 자꾸하다보면 개별적 특성이 사라지게 됨. 철저하게 익명성, 중립성 갖게 됨. 한 개인은 사라지고, 전체 획일화 되고 익명을 가짐. 하나만 보면 캔이 되겠지만 반복하다보면 개별성은 사라지고 익명성으로 변한다.

팝아트의 특징 : 나는 기계가 되고 싶다. 무미건조함. 무감정. 무감각. 중립성.

반면 폴록 왈 나는 자연이 되고 싶다. 자아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개별적.

기계적 반복 위해서 실크 스크린 이용. 🡪앤디워홀의 가장 큰 특징

실크 스크린 사용으로 작가의 개성 최대한 배제. 대중문화 시대의 대중의 삶 표현.

반복->재생산 대량생산 체제의 반영. 대량생산->동일성, 반복성🡪앤디워홀의 특징적인 미학

대중 문화의 특징이 다 팝아트가 된다.

자신의 화실->팩토리 . 기계가 되고 싶다. 반복 찬양. 겉으로는 돈돈(대중 사회의 부르주아 특성)거리나 내적으로는 평등의식을 많이 강조.

코카콜라 왜 했냐 ->대통령도 마시고 거지도 마신다. 코카콜라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줌.

단조로움, 반복, 기계에 대한 찬미 이런 것을 통해서 고전적인 예술의 고귀함을 전복시킨다.

그렇지만 앤디 워홀이 유일성을 잊지 않는다!!!!!!!!!!!!!!!!!!

작품 자체를 대량 생산X. 패턴을 반복 하는 것. 반복->기하학적. 앤디워홀의 내면에는 추상에 대한 존중 있었다. 미니멀리즘 사조와 공통되는 특성.

21) 앤디 워홀 <황금색 마릴린> 1962 // 60년대 영화사업 발전하면서 대중 문화의 아이콘(마릴린먼로). 앤디 워홀은 대중 스타처럼 그렇게 되길 원함. 그래서 마릴린 먼로로 분장한 것도…

마릴린먼로는 대중성의 기호. 황금색에 둘러쌓여있는 마릴린 먼로는 일종의 여신. 현대의 여신. 옛날의 여신은 마리아. 중세 때 하늘을 상징하는 색채는 노랑색. 노랑색은 종교적으로 천국, 하늘을 상징. 그런데 현대에서 노랑, 황금색은 금,돈을 상징. 돈 밭에 있는 마릴린먼로. 그래서 현대의 여신은 사랑의 여신이고, 미디어의 스타이고, 과거의 성모 마리아 대체.

22) 앤디 워홀 <마릴린 몬로> 1967 // 마릴린 먼로 외적으로만 화려 BUT 자살. 앤디워홀 고독해보임 동성애자. 우울하고 고독한 느낌.